

혁신도시 지역인재 우선채용 광주 불이익 없앤다

시행령 대상지역 전남에 국한

나주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국토부 “단일권역 반영하겠다”

광주지역 구직자들도 나주빛가람도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우선채용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이 단일권역으로 인정돼 분리반영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 우선채용과 관련한 시행령이 자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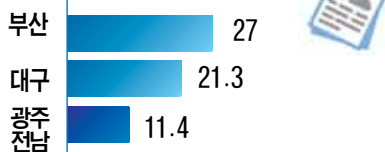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 측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권역 논란은 시행령 문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개정된 국토부 시행령은 ‘혁신도시 이전지역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채용 대상지역은 나주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인 전남으로 국한되고, 광주인재들은 우선채용에서 배제될 수 있는 셈이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권역으로 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지난 13일 국토부 업

■ 혁신도시 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016년, 단위: %)



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시행령에서 각각 개발된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권역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규정해 놓고 처음부터 단일생활권으로 조성된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국토부의 해석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1차관은 “나주혁신도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조항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같은 취지에서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온 상태다.

한편 지난해 나주혁신도시의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1.4%로 2015년 14.2%보다 하락했다. 부산혁신도시 27%, 대구혁신도시 21.3%와 비교해도 대조를 이룬다.

특히 한국전력의 2015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10.8%(평균 14.2%), 지난해 채용률은 8.8%(평균 11.4%)에 그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비자 100% 만족 얻기’ 23일 aT 교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은 오는 23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식품클레임 대응기법’ 과정<사진>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식품클레임 대응기법’ 과정은 최근 식품업계에서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중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자로서 지녀야 할 이론적 지식은 물론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며 전년도에도 매 기수 정원을 초과하는 교육 참가자가 몰리고 있다.

교육내용은 식품관련 소비자 클레임의 대응기법과 처리방안, 식품기업의 클레임과 PL(제조물책임) 등에 관하여 다루며, 교육생들은 유형별 불만고객 응대

방법과 상담 프로세스 등을 학습함으로써 클레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정의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고객상담 업무담당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한다.

1일 8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올해 4월과 6월, 8월, 그리고 11월에 4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4000원의 자부담금만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연 6만원 상당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위, 28일부터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대표적 문화복지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2017년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보조금 지급은 카드발급(총전) 방식으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며, 신청은 각 지역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발급은 지역별 개시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월 17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28일에는 광주·전남·전북·인천·제주에서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201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이들은 문화·여행·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6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1매씩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일 예전(2014~2016년)에 사용하던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보다 간편하게 올해의 보조금을 충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 마감은 11월 30일까지이며, 카드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본인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농구·야구·배구)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장르별 가맹점 및 사용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왼쪽 세번째)은 지난 13일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 <한전 제공>

20년간 매출 6500억원…한전, 요르단에 풍력발전소 착공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6일 “지난 13일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착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 이브라힘 사이프(Ibrahim Saif)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압델-파타 알리-파야드 엘 다라드카(Abdel-fattahAli-FayyadEl Daradkah) 국영 전력회사(NEPCO) 사장 등 주요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푸제이즈 풍력발전사업(89.1MW)은 한전이 단독으로 지분 100% 투자해 수주했다. 한전이 2018년 10월 준공 이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해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BOO(Build, Own, Operate)방식이며, 향후 20년간 약 5억7000만불(한화 약

65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2013년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풍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2년 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과 협상 결과, 2015년 12월 전력판매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총사업비는 약 1억8400만불이며 사업비는 한전이 설립한 요르단 현지법인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KEXIM), 국제상업은행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한다.

한전은 요르단 이외에도 UAE 바라카 원전(5600㎿), 사우디아라비아 라비 발전소(1204㎿), UAE 슈웨이ihat 발전소(1600㎿) 등 중동지역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환익 사장은 착공식 기념사를 통해 “본 발전소의 착공으로 요르단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함은 물론, 요르단과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10년전 중국 풍력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일본,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수주 한 데 이어 이번에 요르단 풍력 발전소 착공을 하게 됨에 따라 신(新)기후 체제에서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창업·기술개발 지원 공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을 위해 ‘K-글로벌 시큐리티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2차제를 맞는 이 사업은 ‘창업지원’과 ‘기술개발·이전 지원’으로 나뉘며, 창업지원 분야 공모는 3월 17일까지다.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7팀에겐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입주공간과 법인설립·특허 출원 컨설팅, 창업 서비스·

개발비를 지원한다.

기술개발·이전 지원 분야 공모 마감은 3월 10일까지로, 5년 이내 창업자 5팀을 선정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의 기술을 이전해 줄 예정이다.

접수안내와 신청서 서식 등은 창업분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와 기술개발·이전 분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www.iitp.kr)에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4차 산업혁명과 농업’ 오늘 농촌경제연구원 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원장 김창길)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농진청)과 공동으로 ‘2017년 정책연구협의회’를 연다.

이번 정책연구협의회에서는 KREI가 ‘4차 산업혁명과 농업·농촌’, 농진청이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 현황 및 계

획’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토론했다.

한편 KREI와 농진청은 2003년 이후 농업분야 과학기술 개발과 경제·정책 분야 간 상호이해를 위해 매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1년 연구협력협정(MOU) 체결을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에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탐욕이 올바름의 덕목 혼드는시대

宗家를 다시 본다

-뿌리의 정신 잊고 사람의 도리 실행하는 고결한 가계
-장흥 고씨 의열공파 14대 종손 고영준씨
-울산 김씨 문정공 대종가 노중부 황주남, 소중부 박차임씨
-하회마을을 풍산 류씨 입암고택과 충효당

문화 엿보기

‘월계수 양복점’ 못지않은 자긍심 불황 속가업 잇는 이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⑨
예술적 온고지신 플랫폼 빅토리아 & 엘버트 미술관

노중문의 꿈의 여행대
실용적이면서 예술적인 디자인의 나라, 스웨덴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④
칠산바다로나아가는 거점, 영광 계마항

예향인 만난 이 사람
더 성숙한 2017년 준비
타이거즈 ‘92년 동기’들
기억보관소 프로젝트 진행
메모리 키퍼 송재영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⑦
밥 딜런 & 빅토르 하라,
엇갈린 운명과 닮은 음악

문화 화제
시행 3년
‘문화가 있는 날’

드론으로 본 세상
곧 봄이 흐를까?

예향인 초대석

기생충 연구와 글로 공감시대 만든 서민 교수

대한민국 식품명인②
술과 함께 51년,
정성으로 익어가는 전통술
이강주 명인 조정형

트렌드 따라잡기②
라이프 DIY,
SNS야 비법을 알려줘!
요리, 패션, 여행의 최적 콘텐츠 창고

아트 뉴스 & 리뷰
45년 연국인 박운모의 자기고백 인극 ‘동행’
전시리뷰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라
이준석 ‘오월 그림전’

남도 美味樂

상향

동학정신 새기며 즐거운 토요일장으로
장흥삼합, 바지락 회무침... 장남간하
탐진강 물 축제, 역사재... 산천에서 흥 넘치네